

부산 이기대 풍피두 센터 분관유치에 부산은 없다.

부산 풍피두가 나오시마, 빌바오와 다른 이유

이기대 풍피두 분관유치반대 부산 시민·사회·문화대책위원회 자료

부산시는 부산시장의 출마의 공약으로 세계적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하였었다. 이것은 부산시장의 공약이기 이전에 지역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세계 모든 도시의 열망이자 부산미술인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 사항이다. 그러나 뜬금없이 시민 미술인들과 소통 없이 천혜 절경 이기대에 프랑스 국립 풍피두 센터의 분관을 유치하기로 하여 거센 반발에 직면하였다. 지금은 풍피두라는 말을 감추고 이기대 예술공원개발 속에 넣어서 찬성하는 소수의 토론만을 시행하고 시민과 소통하였다고 할 것이다.

풍피두 미술관 부산유치에 대해 진심으로 들여다 보는 부산의 시민과 미술인들은 프랑스와의 굴욕적인 협약에 분노하고,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을 걱정한다. 또한 부산의 낙후된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환경복원을 간절히 소망한다.

문화정책입안자들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미술관 건립사례로 일본의 나오시마와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예를 든다. 나오시마와 빌바오를 롤모델로 부산에 미술관을 만든다고 한다면 부산의 산업적으로 낙후되고 문화와 역사가 재조명되고 부흥해야 할 지역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남구와 해운대구 등 이미 주거와 문화가 안정적으로 개발되고 정착된 지역보다는 부산의 서쪽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나오시마와 빌바오처럼 폐허가 되어가는 오랜 산업도시와 썩어가는 강물을 되살린 프로젝트를 부산의 어디쯤 실행해야 할지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공청 해야 한다.

부산시는 나오시마와 빌바오 구겐하임의 예를 들어 수익 창출과 관광자원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미술관을 단순히 이런 가치로 본다면 미술관의 중요한 역할이 사라지고 없다. 관광과 경제적 수익이 강조된 세계적인 랜드마크 미술관을 만든다는 것은 목적과 결과가 전도된 불순한 오류이다.

미술관의 역할과 미술품 전시의 본질

미술품 전시의 흥행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예술가의 사유를 전달하고, 교육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창달하여 공유하는 것이다.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 독특한 지역 미술관에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고 전파되

어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부산시장은 무라카미 다카시전을 미술관 흥행의 예로 들기도 했다. 2023년 1월부터 2개월간 부산 시립미술관의 무라카미 다카시전에 16만명이나 왜 그렇게 몰려갔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홍보나 흥행을 잘했다. 볼거리에 목마른 시민들과 여행객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도록 안내도 했다. 몇 명이 왔는지 돈이 얼마나 거두어졌는지도 잘 챙기고 있다. 전시기획은 그것이 전부일까?

그러나 다카시의 반짝이는 꽃문양과 화려한 일본 색의 즐거움 뒤에 전쟁으로 무참히 칼이 박히고 방사능으로 피부가 녹아 내장이 드러나 버린 전후 일본의 고통과 우울함이 표현되어 있었다. 내 관점에서는 너무 절실하게 느껴졌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볼거리를 즐겁게만 감상했을까? 일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연민과 함께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그 엄청난 과거를 떠올리며 목이 메이는 장면이었다. 다카시가 단지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라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면 부산의 미술관에 식민통치와 전쟁으로 고통받은 부산의 아픔과 울분을 표현한 작품도 분명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술을 경제와 관광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부산사람과 시간이라는 콘텐츠를 다룬 미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언제는 미술관 하나 없는 부산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부산을 담지 못하는 미술관만 생길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에서 부산이 주목할 점

1년에 100만명이 다녀가는 이 롤 모델은 매우 중요하기는 하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미술관 설계로 유명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빌바오 구겐하임의 성공사례에서 부산시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낙후된 도시를 재생시키는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¹⁾이다.

1) Bilbao Effect: 19세기 후반 스페인의 철강, 조선, 중공업 도시로 발전했던 빌바오는 20세기 후반 거대한 위기를 맞는다. 세계적인 탈산업화 경향으로 대량실업과 경제 위기를 가져오고 도시의 자연과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 되었다. 1980년대는 유럽경제가 전체적으로 서비스 및 관광 중심산업으로 변화하게 되었지만 빌바오는 제조업 비중이 너무 커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강은 오염되고 낙후된 산업 시설과 공장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였다.

도시의 매력이 사라지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스페인 바스크 정부와 빌바오 시 정부는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 전략을 내놓았다. 세계적인 문화 시설을 유치하려는 바스크 지방의 고민에 뉴욕 구겐하임 재단은 새로운 현대 미술관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1991년, 바스크 지방 정부와 구겐하임 재단 간에 협약 체결이 되고 구겐하임 재단이 미술관의 운영을 담당하고, 바스크 정부가 건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미술관 설계를 맡아 빌바오 강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인 해체주의 건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안정되고 자존감있는 주거공간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난개발하여 더욱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빌바오 효과일까? 부산에는 이런 효과를 적용해야 할 정말 ‘낙후되고 오염되어 살기 힘든 지역’이 너무 많다.

부산의 역사, 아픔, 지형환경, 산업적 영향,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고 시민들과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정치공약의 임기내 실현 같은 졸속 발전을 꾀할 영역이 아니며 장기적 문화정책을 신중히 입안해야 한다.

빌바오는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임에도 1992년 당시에 문제점인 많은 진행과정을 가지고 있음을 부산시도 알아야 한다.

전통적인 국제 공모 방식이 아닌 빌바오와 스페인 바스크 지역정부의 내부 협의를 통해서만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당시 운영난에 처해있던 뉴욕 구겐하임 재단 이사장인 토마스 크렌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오늘날 21세기에는 이런 밀실 졸속 강제정책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 결과가 죽어가는 도시를 살린 점도 있지만 20년이나 장기집권한 구겐하임 재단 크렌스 이사장이 그 독재적인 미술관 운용에 대해 수 많은 질타를 받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유럽미술관들의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전략이 트렌드화 된다. 퐁피두나 나오시마는 그보다 한참 후발주자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글로벌”처럼 유럽을 탈중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의 지식 관행을 재위치시키고 **포스트 식민지**²⁾와 같이 비유럽 세계의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구겐하임 미술관이 빌바오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다. 1997년 개관 이후, 빌바오의 경제 및 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관광산업 활성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도시 재생 및 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도시가 빌바오를 벤치마킹하여 LA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이나 독일 함부르크의 엘브필하모니와 같은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업 도시에서 문화 예술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채택하는 트렌드를 만들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문화가 도시를 재생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나오시마(直島)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도시 재생 모델로 참고하는 성공 사례가 되었다.

2) < **Museums and Globalization** > Saloni Mathur (2005)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포스트 식민지 박물관 연구를 향하여 비서구적 비엔날레의 최근 급증, 토마스 크렌스가 전 세계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욕구, 이라크 국립 박물관의 유산 파괴, “보편적 미술관”이라는 반동적 개념, 포스트 식민지 비평으로 가능해진 개념적 침투—이 모든 것은 21세기에 대한 비판적 미술관 연구를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변화하는 세계적 풍경의 사례이다.....

디페쉬 차크라바티가 주장했듯이, 유럽을 “근대의 주요 거주지”로 생각하는 경향은 비서구 역사를 유럽 역사의 단순한 에피소드로 격하시키고 비서구 문화의 발전을 근대로의 불완전한 역사적 전환으로 설명한다.

미술관의 경우 이러한 시점에서 연구는 더 이상 사물을 알고 전시물을 설치하는 것에 국한될 수 없다. 이론과 실천, 과거와 현재, 기관과 커뮤니티, 현대성의 다양하고 불균형한 궤적 간의 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종류의 비판적 훈련을 정의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역사에 기반을 둔 훈련이다. 이는 “글로벌”을 방법론적 문제로 보는 훈련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훈련이다. 이는 지배적인 관행에 대한 대안을 상상할 비판적 사상가를 양성하도록 설계된 훈련이다. 그때서야 우리는 토마스 크렌

유럽의 상호 침투가 시작된다는 점이라는 문화적 비판이 팽배하여 있는 시점에 이와 같은 오류의 관행을 부산시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위 문화 전문가들이라는 비평가, 미술관 관장, 부산문화관련 기관장들이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잘된 일이라도 날카로운 비평을 하여 조금의 오류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방기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전문지식이 있다면 자긍심 있게 올바른 직언을 해줄 것을 바란다.

그리고 빌바오 건립 당시 현지 건축가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는 토마스 크렌스³⁾ 구겐하임 미술관장의 강력한 선택과 정치가들의 지지로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스페인은 저 유명한 가우디의 건축 양식을 물려받은 현대 건축가가 많을 것이다. 가우디의 건축은 지역의 문화와 종교, 기후, 역사적 고난, 아르누보 양식과 안달루시아의 지형까지 스페인의 모든 것을 반영한 자존심이기도 하다. 이런 건축의 자존심을 보유한 스페인에서 해체주의 건축방식과 강을 닮은 유기적 곡선 때문에 프랭크 게리를 채택했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없다. 프랭크 게리의 브랜드 가치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해두자. 순간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프렌차이즈의 흥행이라는 경제적 방식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오시마 미술관 개발 동기와 과정은 바람직하다.

일본의 대표적인 교육·출판 기업인 후쿠타케 소이치로(福武總一郎, Soichiro Fukutake)는 베네세 코퍼레이션(Benesse Corporation, 구 福武書店)의 전 회장으로, 나오시마를 세계적인 현대 미술의 섬으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스와 같은 사람을 대체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https://www.academia.edu/3720504/Museums_and_Globalization_2005

3) 참고 사이트: 미국 BNP Media.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e News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겐하임 대표 토마스 크렌스(Thomas Krens)가 사임하다

작성자: Josephine Minutillo/2008년 2월 29일

<https://www.architecturalrecord.com/articles/4264-thomas-krens-guggenheim-s-controversial-leader-steps-down>

토마스 크렌스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Thomas_Krens

토마스 크렌스 사건 the-thomas-krens-affair 토마스 호빙

<https://vanityfair-staging.azurewebsites.net/article/1993/3/the-thomas-krens-affair>

그는 나오시마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과 예술,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베네세 아트 사이트 나오시마⁴⁾ (Benesse Art Site Naoshima)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후쿠타케 소이치로의 철학과 비전이 있었고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장기간 거쳤다. 미술관의 흥행이 아니라 문화가 물질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 우려했으며 자연과 문화, 예술을 다시 부흥시키고자하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나오시마를 선택했다.

인간의 감성과 사고를 풍부하게 만드는 공간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와 예술”을 목적으로 했다. 섬의 기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예술 프로젝트 진행하여 “지역사회와 자연, 예술의 조화”를 이루어 내었다. 나오시마를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예술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구축하여 “현대 미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꾀했다.

건립과정부터 오랜기간의 점차적 실행까지 참으로 지역 발전적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후쿠타케 소이치로는 단순한 관광 개발이 아닌 자연과 예술,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건축가 안도 타다오와 협력하여 베네세하우스, 지중미술관, 나오시마 슬럼 프로젝트를 통해 섬을 변화시켰다.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마을을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개발을 진행했다.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예술 및 지역 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다. 후쿠타케 소이치로의 비전 덕분에 나오시마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현대 미술과 자연, 그리고 지역 사회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도 지역문화의 독창성이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산의 세계적 미술관을 생각할 때는 식민통치와 전쟁으로 고통받은 부산의 아픔과 울분, 부산사람과 시간이라는 콘텐츠가 분명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술을 경제와 관광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진지하게 부산을 표현할 미술을 기획하고 그를 담을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부산의 미술가들도 “글로벌”에만 목매지 말

4) 나오시마 미술섬의 역사와 철학, 지역예술가와 진행되는 세계적 미술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진행들을 볼 수 있는 참고물: 베네세 아트 사이트 나오시마 <https://benesse-artsite.jp/en/>

철학, 역사, 출판물, 분기별 잡지, 섬에 대하여, 접근성, 주요 도시에서 섬으로의 접근성, 항구에서 섬으로의 접근성, 나오시마 섬의 교통, 테시마 섬의 교통, 이누지마 섬의 교통, 교통 링크, 예술, 나오시마 신미술관, 지추 미술관, 베네세 하우스 미술관, 히로시 스기모토 갤러리: 시간의 회랑, 이우환 미술관, 아트 하우스 프로젝트, ANDO MUSEUM, 불의 고리 - 태양과 달 위라세타쿨, 나오시마 목욕탕, 세토우치 아카이브/미야노우라 갤러리 6, 나오시마 플랜 "물", 테시마 미술관, Les Archives du Cœur, 테시마 요코오 하우스, 테시마 800만 랩, 바늘 공장, 톰 나 히우, La forêt des murmures, 이누지마 세이렌쇼 미술관, 이누지마 "아트 하우스 프로젝트" 이누지마 라이프 가든, 이누지마 아트 랑데부스

고 주변에 있는 사회의 조형적, 사회적 현실에 도전하고 대중과 공유하는 건전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표방해야 한다.

나오시마와 빌바오의 다른 점

전술한 바와 같이 나오시마는 기획적인 측면에서 빌바오나 부산시와는 그 철학과 자연을 대하는 시각이 달랐다. 그리고 지역민의 삶과 지역의 예술가와 건축가를 지속 가능하게 기용하고있는 시간적 연속성에서 미래가 기대된다. 고유한 그들만의 주체성있는 현대미술로 세계화를 꾀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빌바오 구겐하임과 폰피두 부산분관의 미래와 비전과는 그 기획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산 측면에서도 나오시마는 후쿠타케 소이치로가 이끄는 베네세 기업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투명하고 사회 환원적인 자본의 투자가 선행하였다는 것이다. 빌바오나 부산시처럼 전액 시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전략은 아니었다. 이러한 민간투자과 경제적 수익구조의 합리화가 필요한 것이다.

부산의 세계적 미술관, 누구나 그 이름만 들으면 참 잘된 일이라고 한다. 좋은 일인데 왜 반대만 하느냐고 한다. 다들 오해하듯이 부산시장이 미워서, 무슨 이권이 걸려있어서, 정치적 선동이 들어있어서 그렇다면 당장 이 반대를 그만 두겠다.

이미 폰피두 부산은 이기대 국제아트센터 속에 숨어 그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고 있다. 문화예술과가 아닌 공원여가담당으로 부서가 바뀌고,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던 국장도 인사발령이 나서 그 직무를 담당하지도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지도 않는다. 시민들이 무언가 모르고 반대만 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보도자료를 내 놓아야 한다.

부산시가 “부산의 세계적 미술관” 그 주체와 미래, 장기적 부산문화의 설계, 정권교체에도 방해받지 않는 전문기관의 위임 등을 한 번도 구체적으로 표방하지도 않았고, 공청하여 오랜 시간 숙고하지 않았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유지하여 유지비도 안되는 입장료를 별 생각에 이후 오랜 기간 “문화적인 포스트 식민지”가 시작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 전문가들과 장기적인 고찰과 숙의가 있고 모든 지역의 시민이 진심으로 염원할 수 있도록 첫 계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